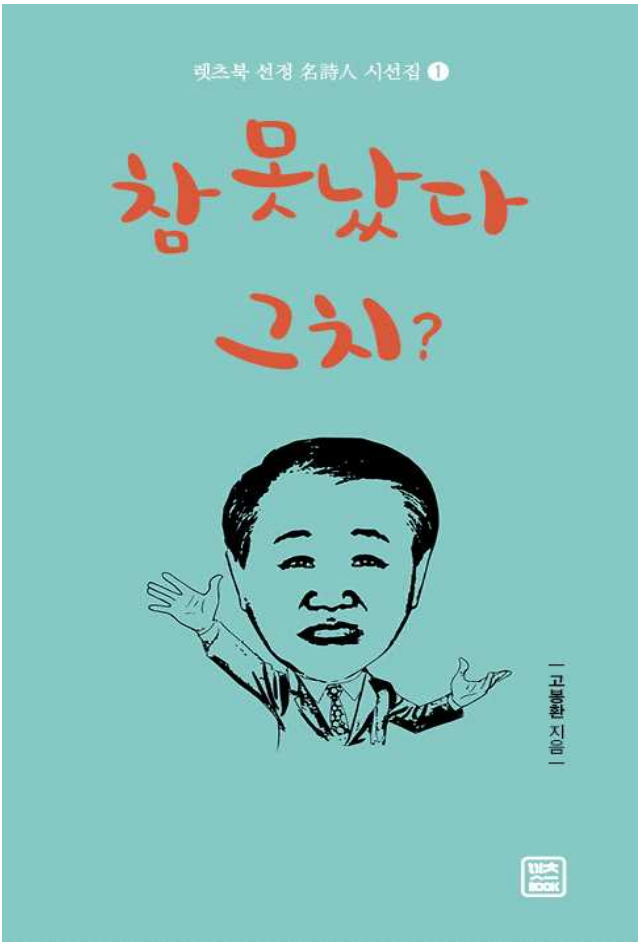
참 못났다 그치?



판권지

참 못났다 그치?



고봉환 지음

렛츠북

서 문

2012년 12월에 강원도 양구의 고방산 충성교회를 떠나면서 주일마다 말씀을 전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매 새벽 카카오스토리에 묵상을 연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하는 이들에게 믿음의 독려와 자신의 역할을 찾아보려는 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순서 없이, 그날그날에 맞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구체적인 말씀의 묵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한 것이 욥기를 시로 다시 써보자는 것이었습니다.
1부에는 욥기를, 2부에는 그간 정리한 시를 담았고, 3부에는 단편 소설로 제주도 미자립교회를 통해 본 더 큰 목회 소망을 담아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렇게 책으로 세상에 보이게 된 배경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이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해 준 이들에게 감사하며, 이 묵상을 쓰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준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출판해준 렛츠북 류태연 대표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이 책을 읽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5. 10. 11.

고 봉 환

목 차

서문

1부 욥기

욥의 신앙

싸움을 거는 자

설마 저에게

변절

하소연

자신을 보라

기이하신 하나님

나에게 위로를

슬퍼 말자

희망

변론

불평

회개 1

참 못났다

나의 하나님

욥의 기도 1

욥의 기도 2

교설(敎說)

표적

국선(國選) 변호사

딴말하기 없기

하나님의 진노

이유

회개 2

하나님에게로

길

침묵

단절(斷絶)

바보 놀음

회개 3

회개 4

격문

회복

2부 창가에서

고향을 물으시면

꿈

가을 1

가을 2

가을 3

가을 4

가을 5

가을 6

그 새벽에

그들은

눈보라

달력

두타연

바위

불타는 마음을 품고

새해의 기도

수상한 신호

시인들

아내

아버지

여의도

연필

예배당 1

예배당 2

요나의 고백

잃어버린 시

제주도 오골계

창가에서

금을 캐다 / 최귀숙

병사의 편지

3부 가상假想교회

假想的 軍 裁判

흩어지는 교회의 假想 목회

후기

1부

욥기

욥의 신앙

정직한 자여!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하나니
악에 물들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자여라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며
영적으로 더욱 갈증을 느낀 자여
아, 오늘 내 영혼이 범죄할까?
내 자녀가 시험에 들지 아니할까?

주님이 지켜주시길
전심으로 경건히 예배하는 자여라

싸움을 거는 자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니
내 죄를 노리는 사탄이
죽은 줄 알았던 옛사람이 움틀 거리며

감사와 만족을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 것처럼 우쭐거리다가
사냥감으로 내던져진

자! 오거라
사탄아, 이제 너와의 지루한 싸움은 시작되었다.

주님은 나를 지키시기 위하여

설마 저에게

설마 저에게
주여, 아니 됩니다.
어찌 저에게
주여,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
어찌 한순간에 앗아가시나이까?
재앙이 일곱 길로
내 영혼에 깊은 골짜기와
바다를 냈습니다.

어찌, 죄 많은 저는 살고
할 일 많은 어린 것들은
삼키시나이까?

이 쓸모없는 몸,
지금까지 헛되이 살아온
저를 데려가셨다면
이리도 애절하지 않았을 것을

주여,
그러나 이미 벌어진 어쩔 수 없는 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또 주님이 거두어야 하신다니
내 아이들이 주님의 품에 안겨있음을

주님,
지금까지 큰 걱정, 어려움 없이 살아왔으니
후회는 없나이다.

그러나
간절히 구하옵기는
이 까닭 없는 고난을 이길 수 있게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변절

주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아니, 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내가
친구가
저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다만
견디기 힘든 종기로 인해
겉모습이 변하여 갈 뿐입니다.

주님,
아내가 하나님을 떠나라니
그녀의 말을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압니다.
주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소연

누군가 나의 순백한 영혼을 이해를
누군가 나의 이 황당한 일을 위로를

아, 어디에서도
마음에도 없는 헛소리
별의별 의미 없는 입놀림

이렇게라도 하지 않고는
내 고통은 견디기 힘듭니다.

이 참혹함을 보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의 몸부림을 하지 않는다면

주님,
아닙니다.
제 몸의 아픔보다 더 아픈 것은
나의 핏줄들을 잃은 아픔이지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니
아니
까닭 없이 달려 들어온 이 고통을
이해할 수 있기를

또한, 주여!
이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요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용기를, 인내를 간구합니다.

자신을 보라

엘리바스의 첫 말
너 자신을 보라
어디선가 들은 현대인의 상투어
그러나
틀리지 않은 뜨거운 단어 배열

자신을 보는 눈과 마음을 잃었다.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모습이 더 싫다.

심는 것 그대로 나는 법이라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 실언을 하시랴

어쩌면 가장 독한 말씀
하나님이
그대에게 받으시리라

주여,
제가 어찌 옳을 수 있으며
정결할 수 있나이까?

기이하신 하나님

주여,
세상을 밝힐 지혜가 있다 한들
삶의 숙제를 풀 사람이 어디 있으며
천지의 신비한 조화에 대답할 이가 아무도 없나이다.

참으로 기이하시고 신비하신 하나님
낮추는 자를 찾으시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갈 곳 없는 이를 품으시는 주여!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줄까?

병들고 찢겨진 육체를 고치시고
지친 영혼을 감싸주시며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사…

나의 아버지께
오직 영광과 찬양을

나에게 위로를

지난날
그대에게 베푼 것 하나라도 있다면 잊지 마오
비록 그대에게는 별거 아니지만

지금 그대에게 바라는 것은
그대가 받은 것보다 더 작은 것이라오

난 그대의 칼바람이나 망치의 뭇매가 아니라
그냥 따뜻한 한마디가 필요하오

그대의 한마디가
내 아픈 곳에 더 깊게 찌르는 비수만 같으니
그대의 책망이
더욱 서글퍼지는 것은…

나는 지금은 이렇게 말하나
이런 말을 하는 내가 더욱 아프다오

이전처럼
그대와 평안하게 자리를 하고
웃으며 주님을 높여 드릴 수 있다면

이제
웃으면서도 슬프고
아프면서도 웃고 있으니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요
아, 나는 오직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오

하나님,
나의 위로자시여, 침묵하지 마옵소서

슬퍼 말자

나의 몸은 언제부터인가 내 몸이 아니다.
낮이 되면 서러운 노래를 부르고
밤이 되면 못내 그리운 낮을 애타게 찾는데

아무리 쓰다듬고 어루만져도
썩어 문드러진 몸뚱어리
고약한 냄새의 역겨움만 풍겨나고

저 하늘을 가르는 새들에게
마냥 기분 좋게 흘러가는 구름에게
이전의 내 몸 어디에 두었는가 물어보아도
허공만 쳐대는 헛된 물음

이미 깊게 병든 몸뚱어리
움직일 때마다
온 세상 고통의 무게 그대로

저 창살 사이를 따라 한 줄기 빛이
내 영혼 한 모퉁이로 스며들면
혼신을 다하여
그분의 품으로 가고픈

그러나 슬퍼 말자, 마냥 아파하지 말자.
이 고통의 몸에
천형(天刑)의 징표를 부둥켜안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자꾸나

희망

수아 사람 빌닷의 생각

세상에 이유 없는 결과는 없어
우연이란 있을 수 없는 거야

반드시 말할 수 없는
아니 차마 말해서는 안 되는 그 무엇이
나의 은밀한 죄이던지
미처 알지도 못한 사이에 지은
죄 때문인지도

지극히 작은 모래알이 살을 아프게 하고
눈에 안 보이는 세균으로 죽듯이

보라, 온전한 인간이 어디 있으며
완벽한 도덕이란 있을 수 있겠는가?
인간이란 허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이때까지 믿었던 거짓과 악의 가면을 벗겨 내어

벌거벗은 영혼으로 하나님을 대하라
인간은 죄인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라

이제
하나님은 그대를 결코 잊지 않으시니
항상 자비하심으로 “돌아오라” 하시니라

이후로
그 고통의 짐에 연민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세

주님은 결코 그대를 부끄럽게 아니하시리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마칠 분도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더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노라

주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니
은혜로 반드시 그대를 도우시리라

변론

나는 한 줌의 흙인 것을
그분의 호흡이 아니면
오늘 나는 숨 쉴 수 없었으리

나는 땅에 있고
그분은 저 천성에 계시니
나는 나의 아픔만 보이고 호소하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피시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신비하신 일들을
허물과 죄뿐인 나는 알 수 없노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 어찌 일일이 다 아니라 하리요

다만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들어주시길
내 고통으로 토해내는 진심만은 받아주시길

고통을 못 이겨 내뱉는 하소연이 아니요
내 진정을 알아달라는 외침이네

어찌
나의 벗들이 내 고통을 알며
내 슬픔을 짊어져 보기나 했던가

하나님은 벗들의 독한 말과 오해에서
나를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변호해 주시리라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 죄로 인한 형벌이 아님을
하나님이 친히 변호하여 주시리라

나는
하나님은 굳건히 믿노라

불평

하나님은 나에게만 불공평하시나?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어야 하나?
나에게 무슨 큰 빚이라도 받으러 온 것처럼
큰소리치는 저들에게는
정녕 아무런 허물이 없을까?

하기야,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은
받은 사랑이 참으로 컸었지

나도 참 한심하다.
이제 기억까지 잊었는가 보다.
이제까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어디다 다 팔아먹고
지금의 고통만 끌어안고 불평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뻔뻔스러운 죄인이로다.

그럼에도
매우 뻔뻔하게 하나님에게 간청을 하련다.

나에게 단 하루라도 이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어쩌면 주님이 나에게 가장 짧고도,
아니 가장 긴 시간을 주시지 않을까?

콧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새 아침이여 어서 오라

오늘따라
밤이
무
척
길
다.

회개 1

눈물이 마른 까닭일까?
눈치가 없어서일까?
자기의 연민이 깊어서일까?

그래 어쩌면
저런 극한 고난을 겪으면
답답함을 호소하고 싶을 것이야

아, 그래도 말이 없으면 그나마
덜 미워 보일 터인데

하나님은 분명 그대의 숨은 마음을
아시고 계실 터인데

자신의 말을 줄이고
주님에게 겸허하게 나가면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을 터인데

안타깝다, 안타깝다.
정말
안타까워

아직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면
그 고통에서 일어날 것이요

믿노니
회개하면

펼쳐 보여질
저 황홀

자신만이 아는
저 희열

참 못났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들은 믿음도 좋지, 의롭기도 하지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 길을 와서
콩이다, 팥이다, 자기들 생각나는 대로
그래 너희들은 참 잘났다.

욥, 너는 참 못났다.
몸은 아파죽겠고
자식 잃은 슬픔은 가시지도 않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나 들어야 하고
없는 죄를 있다고 구박을 받다니

그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나를 생각해도
참 못났다. 그치?

나의 하나님

어찌 하나님은 이리도 아는 것이 많은
이들을 허락하셨을까?
어찌 옳은 말만 하는듯한
입들을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

어쩜 저들은 자기들만이 옳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진정 옳은 자는 고난 중에 침묵하고,
자신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길길이
날뛰는 세상이란…

보라!
세상에 설명되지 못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는 갖가지 役事를

알지 못하였던 일들이 이제야 알아지는 것은
이 고통 속에 갇혀서 세상을 보니

내가 철학자요, 예언자요, 선견자가
다 되어가나 보다.

누가 나의 고통을 알며,
나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을까?

나의 참담한 고통을 깊이 알지 못하고
쉽게 판단하고 조롱하는 이들 앞에서
하나님은 분명 나를 긍휼히 여기고
이 고통에서 구원하시로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도다.

오직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굳게 믿노라

욥의 기도 1

들어보라!
세상살이 참 얄궂다.
이리저리 얻어들은 적은 지식으로
마치 큰 비밀을 아는 것처럼
주절주절 떠들다니

사실 인간 동네 이야기란 쓰잘데기없이
저 쓰레기 창고에 케케묵은 것들

나는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
잠잠하여지기를 기다려
정말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다.

위에서
님은 나를
나 보고
하 계실
것이니

혹 주님이 내가 생각나지 못한 죄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시면 어쩌지

혹 주님이 정말 나를 모르신다고 하시면
어쩌지 정말 어쩌지, 어떻게 하지

저들 앞에서는 큰소리치고 있지만
정녕 주님을 뵐 수 있을까?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은총을 입었고
그 사랑으로
여호와의 홀을 붙잡겠다.

* 홀 : 왕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

욥의 기도 2

나와 주님을 갈라놓고 있는
누가 그어 놓았는지도 모르는
낯설고 붉은 경계선 한 줄

주님의 손에 맡겨져서
영원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는
낯설고 붉은 경계선 한 줄
그리고 절망

잔뜩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눈물을 빼내어 소리쳐 부르짖지만
괜히 미안해지는

주여!
이 세상에서는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어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를 소원하고
내 두 손 모아 기도하오니

제 어리석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세시기를 잠시 잊어주시고

제 죄를 아주 잠깐만
하나님도 찾을 수 없는 곳에 꽁꽁 감추어 두시고

주님이 숨겨주시고 보호하신다면
저 낯설고 붉은 경계선은 지워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기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분에게
간절하게 기도할 뿐

교설(敎說)

敎說,
이는 어긋난 이들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온정의 가르침이요,
만인이 지키고 따라야 하는 신앙의 근본이다.

허무한 일들을 믿지 말고, 따르지 말며, 듣지도 말라
결국 허무한 결과를 얻을 뿐이다.

인간의 허접스러운 지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측정할 수 없으며
인간의 고통을 인간의 힘으로
치료를 할 수 없는 일이다.

과연 이 땅에 의로운 자가 있느냐?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고 자신 있게
말할 자가 있느냐?
자신 있게 의인이라고 하는 자가
바로 가장 큰 죄인이며, 교만한 자이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여!
이제 그대에게 곧 닥쳐올 재앙을 생각하라

그대들이 누리는 것이
평안이요, 행복이요, 축복이라 생각하나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것은
더 큰 죄를 쌓아가는 허무한 일상인 것을

아, 그러나 차마 말하기 어려운
믿노라 하면서도 믿지 아니하고
입만 열어,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과연 그대의 영혼은 하나님의 거룩과
그리스도의 순결한 피로 충만하신가?

어찌 이 땅에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침묵하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그리고
그대의 구속자에게로 나가자.

나의 구속자 그리스도여!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소서

표적

베임을 당했다.
순간에 뒤에서 베어 들어 온 것이다.
흘려 낼 피도 없었다.
이차돈은 흰 피를 흘렸다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모양이다.

소리를 지를 수 없다.
왜 베었는지
왜 베임을 당해야 하는지 모른 채

아니 알아도 베임을 당해야 한다면
베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누구에게도 베임을 당했다고
말할 수 없는 이 슬픈 타살

베이는 이는
정당한 행위라고 하지만

베임을 행하는 그 순간
자신도 돌이킬 수 없는 베임을 당한다는 이치를

베이는 이나 베는 이나 같이 죽는
돌이킬 수 없는 이 엄청난 칼부림

칼을 들지 않은 이만
자신의 성취에 만족하여 음흉하게 웃고 있다.
칼을 들지 않고도
모두를 타살할 수 있는 저 위대한 무기

베임을 당한 자는
죽임을 당하고
베이는 자는
승리의 함성에 만족하면서
자신도 희생자임을 모르고 있다.

죽어가는 나에게는 그런 무기가 없다.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으깨시고
나를 세워

표 적
으 로
삼 으
셨 기
때 문
이 다

국선(國選) 변호사

저들은 화려한 경력과 노련한 경험을 가진
로펌 변호사들
나의 죄를 일부러 들추어내서
반드시 죄인으로 만들 것인가?

나는 담보를 댈 수 없고
보석금도 못 내는 힘없는 존재

저들 유명한 로펌 변호사들의
확신처럼 죄를 인정하여야 하나

나는 알고 있다.
저들의 집요한 추궁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렇다고 무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지 않은가?

저들의 변론은
내 없는 죄마저 죄인으로 만들어 내려는 자들

하여
부득불 저들의 해임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누가 이 요청을 들어나 줄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의 무죄를 변호해 줄 수 있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다.

선임계 : 성령님을 나의 국선 변호사로 요청합니다.

S.O.S

딴말하기 없기

나의 벗이여!
그렇게 용감하게 나설 것까지
내가 그리도 큰 죄를 저질렀는가?

나의 병든 몸을 보라
피고름이 흘러넘치고
바싹 말라버린 이 꼬라지를

내 어디를 찔러 피고름을 더 흘려야
그대들의 마음이 흡족하겠는가?
언제쯤 헛된 말의 노름을 멈출 셈인가?

어제만 하여도
내 앞에서 칭찬과 아첨을 하고
무언가 얻어갈 것 없는가 찾더니
이제그 모든 필요가 없어졌던가

우리 사이에 남은 것이 이것인가?

처지가 바뀌었다고
단번에 얼굴을 바꾸고
무 자르듯 할 필요가 있는가?

양지가 음지가 되고
건강한 자가 병든 자가 되고
웃던 자가 우는 자가 될 뿐인데

그래 내 허물이 크고
죽을 죄가 있다고 하자.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우르르 달려올 필요까지는

진정
나를 도와줄 벗은 없구나
이제 호소할 곳은 정말 하나님뿐

나의 말이 기록되어
훗날에 하나님에게 나아가
서로의 말이 증거가 되리라

그때 딴말하기 없기다.

하나님의 진노

의미 없이 사는 것이 명예인가?
의미를 느끼며 살아야 명예인가?

모든 것을 가졌어도 순간에 잃어버리는 것이 삶이라면
넉넉하게 누리면서도 불행하다면
그대가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있었으리

모든 것은 잠깐
행복은 한낮 꿈에 지나지 않고
낭만의 추억은 붙잡지 못하니
잠시 누리는 영화보다는
영원히 얻을 영생을 사모하라

바르게 사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청춘은 잠시의 호기였을 뿐

무엇을 명예로 삼고 살았던가
그 명예도 진흙 속에 묻혀질 뿐
잠시의 장난감에 불과한 것이니

때로는 번개처럼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덮쳐 오는 날
후회하지 말라
정녕 후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정녕 그 날에 셈하실 터

이유

다 이유가 있으니
들판의 이름 없는 풀도
강가에 널린 자갈들도

잠시 저들 이야기를 들어보세
들꽃은 자기의 이름을
아무도 물어 봐주지 않아서 그랬다는군
자갈들은 발에 걸리다 보니 미움을 받아 그랬다네

모든 게 다 이유가 있는 법일세

하물며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던 나도
이 고난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걸세
왜 믿음으로 옳게 살려는데 시비가 많은지
사실 선한 믿음으로 사는 이들은 힘이 없다오
이 세상은 믿음으로 착하게 살면 바보인 줄 알거든

옳게 살기보다는 사바사바 하는 이들이
잘사는 것이 당연한 세상

그렇다고
정말 나를 비난하는가,
아니지, 아니지, 결코 안 되지

비난하는 그 죄목에
그대들의 이름만 넣어서 들어보라
그 비난은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받아야 할 것임을

내가 위로를 청하지도 않았으며
판단과 비난도 청하지 않았건만
참 친절도 하셔라

이제
나를 비난하지 말고

그 비난으로 그대를 보라
나를 판단하지 말고
같은 잣대로 그대를 판단하라

그리하면
그대들이나 나는 죄인임을 알리라

주여!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회개 2

주님,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였던 때의 죄를
기억하지 마소서

주여,
방탕하였고 교만하였던 젊은 날의 죄를
기억 마옵소서

모든 것이 어리석은 욕정과 충동으로
지은 죄뿐입니다.

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너무 힘들고 아팠다면
그들에게 무릎이라도 꿇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으나
교만의 귀만 잔뜩 커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영혼을 측은하게 보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에게로 돌아가도록
에덴동산의 불 칼을 거두시고
제발 천국의 쪽문 하나 열어주소서

하나님에게로

오늘은 제일 이쁘고 좋은 옷을
입겠습니다.

비록 근심과 무거운 몸이지만
발걸음 편치 못하여도
제일 이쁘고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바보요, 장님이어서
늘 내 앞뒤에 계신 주님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하였으나
오늘은 꽁꽁 감추었던 나의 영혼을 맡기고
주님의 큰 품에 안겨 보겠습니다.

나도 모를 무거운 짐을
너무 오랫동안 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고통을 아실 것이니

오늘만큼은 주님에게 아무 말도
올리지 않겠습니다.

입을 열면
큰 귀를 막으실까 봐
손을 펴면
돌아서지 않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마냥 눈물만 흘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이쁘고 좋은 옷을
입겠습니다.
처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에게 나갔던
그날처럼

오늘은 가장 이쁘고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길

길을 잃은 것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눈에 박힌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면
겨우 그제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잠시 생각해볼 뿐

언제나 갈 길을 모르고
마냥 목적 없이 걸었습니다.

앞사람이 걷기에 무의식적으로
놓치지 않으려고
따라 걷다가
그 사람의 걸음걸이까지 닮아버렸습니다.

옳은 길을 걷고 싶습니다.
올곧은 걸음을 배우겠습니다.

땅만 내려다보고 나가는
길이 아니고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걸음이 아니라

이제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이제 꽉 막힌 담을 허무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길

침묵

침묵은
아무것도 만들어 내지 않는다.

침묵은
타인의 깊이를 들여다보면서도
그에 대하여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다.

침묵은
자신의 고통을 삭이면서
아무에게도 자신을 보이는 법이 없다.

침묵은
자기를 비우는 비결이다.
담지도, 내지도 않은 채로 변하지 않고 고요히 있다.

하나님
여전히 침묵하시니

나만

주절, 주절

단절(斷絶)

거리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날 부르는 소리는 없었다.
저렇게 킬킬 컬컬한 소란 속에서도
나를 아는 이 없으니
참으로 이상한 거리이다.

그 속에서도 난 저들을 바라보는
눈이 두 개나 있다.
그러나
그 눈은 나를 볼 수 없는
슬픈 눈이다.

내가 저들에게
악수를 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
저들과 나 사이에는
익명의 거친 모습만 존재한다.

거리의 저들은 날 빼닮았으나
그 사이엔 무거운 고독이 가로막은
단절이다.

나는 늘 외롭다고 생각하는데
저들은 외로움도 모르고 사는 모양이다.

또한,
이 거리에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

참혹한 고통, 눈물의 산맥
몸부림쳐도 얻을 수 없는 평안

아,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바보 놀음

무엇엔가 홀린 것은 아닐까?
너무 익숙해서 물어보는 것을
잊은 것일까?

갖가지 포장을 해서
철학적인 것처럼
詩學적인 것처럼
가장 인간적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보여주어야만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을까?

안다고 한 것이, 믿는 것들이
나의 확신이 진실일까 하는
회의(懷疑)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생활에
의심을 하지 않았던 익숙함이
갑자기 낯설어지는 그 어느 새벽

아!
바보처럼 살았구나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이 길을 내시며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끌어안고 있었다니

바보 놀음에
세월을 다 보냈구나

회개 3

나의 숨이 멈추는 날
부끄러운 죄가 없다고 하면
거짓이려니

살아있었던 그 날들 동안
허튼 삶을 살았느냐고 물으시면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리오니

물론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많은 자비를 베풀지는 못하였으나
슬픔을 당하는 이들에게
큰 위로를 주지는 못하였으나
결코 거짓으로 살아오지 않았음을 감히…

내 허물을 일일이 기록한 상소장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내 삶에 제일로 귀하고 가치로 여긴 것이
오직 믿음이었음을
구구절절이 밝혀야만 한다면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격문이라도 써야 하리까?
상소장이라도 올려야 하리까?

주여, 감히 말씀을 드리옵기는
저들이 고발한 죄가 있다면
그 죄는 알지 못하고 지은 죄였을 것이라고
제가 어찌 하나님의 거룩을 알고도
죄를 저지르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혹시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죄인입니다.-

부디 제 젊은 시절에 지은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감싸주시기를

회개 4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며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인간의 부질없는 말로 주님의 뜻을 가린 자가 있다면
바로 저였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영적 일들을
주절, 주절
아는 척했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제게 베푸신 사랑을 잊었습니다.
제가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주셨던 재물의 풍요로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주셨던 은혜를
사회적으로 천박하게 살지 않도록
체면을 세워주신 일들
이전에 건강을 주셨던 시간에 대한 감사를

미련한 저는
잃어버린 것들만 섭섭하고
부당한 판단에 대한 분노만
허물만 들추어내는 야속함에

주님,
이제 영적 눈과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겨우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그간 참으로 잘못 살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면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깊은 골짜기에서
부디 건져주시옵기를

제 깊은 마음을 내리치며
미련하게 살았던 시간들을 후회하며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없었던
자신을 자책하오니
이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참 미련하게 살아왔습니다.

진정 회개합니다.
주님은 영원하시며 살아계시고
제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격문

들어라!
하나님은 불변하시며 공정하시니
꺼져가는 촛불도 살리시고
억울한 자의 하소연을 들으시고
모함자들 앞에서 밝히시네

누가 없는 죄를 지어서 뒤집어씌우며
없는 허물을 들추어 거짓으로 말하려는가
스스로 그 올무에 빠질 것인즉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네

보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이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며
모략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의로운 옷을 입히시고
금 면류관을 머리에 얹어주시며
손을 내밀어
당신의 거룩한 보좌 곁에 앉게 하시니

보는가!
보이기는 하는가?
저기 그대가 보는 한 사람이
그대들이 멸시하고 악인이라고 칭하던 그를

깨달아라!
의인은 없다.
그러므로 그대들이 판단하는 자체가 거짓이다.
하나님만 의로우시니
누구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굳건히 믿으면
어떤 고통과 모략, 슬픔에서나
하나님은 건져주시네

믿어라!
세상에 믿을 것이 무어냐?
의사들이 병의 근원을 알더냐?
변호인들이 밝혀내 주더냐?
벗들이 있기는 하더냐?

무엇을 믿을 것인가?
믿을만한 것들이 어디 있느냐?

아, 나의 하나님
내 슬픔과 억울함을 아시며
내 고통의 부르짖음과
말할 수 없는 모략과 고독을
기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굳게 믿습니다.
굳세게 믿겠습니다.

이 격문은 나의 피로 쓴 것이요,
내 고통의 세월로 도장을 찍고
하나님이 보증하신다.

회복

참 길었다.

나의 고통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를
달아보았던 마귀의 계략임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어리석음을 알아야 할지니

사람이 어찌
영적인 신비한 일을
세 치의 혀로 다 설명하리오

억울함을
저들의 면전에서 풀어주시고
잃었던 것에 대한 보상을

견딜 수 없는 고통에도
비굴하지 않았다.

비난과 모략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았거든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아는 체하지 마라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자를
찾으시거늘
과연
믿음이 있는 자가 몇이나 될까?

조금만 고통이 와도
아주 작은 일에도 상심을 하는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믿음을 굳게 지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굳게 믿으면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벗겨주시니
다만
그 시간이 길지 않기를

그리고
이전의 평안으로 채워주심을
바라며, 믿으며
이 시간을 감사하자.

2부

창가에서

고향을 물으시면

유독 이 날에 고향이 생각나네
그곳은 추억과 상상에 잠깁니다.

제 부모님들은 월남을 하셨답니다.
함경남도 북청군 덕성면에서
함경북도 함흥에서
6.25 동란으로 그 긴 얼음 속,
눈길을 걷고 걸어서
남쪽 끝머리 부산까지

마음이 울적하시거나
약주 한잔을 하시면
북청의 가족들, 친지들,
그들이 일부가 피난 왔을 터인데
영도다리 지나다 뒷모습이 비슷하면
달려가 붙잡았다지요
군민회, 도민회에 가서 소식이라도
한 줄 들어보겠다고

평생을 쫓아다녔다지만
들리는 소식은 '다 죽지 안칸슴등'
그러면 거기가 내 고향인가요?

아니면
제가 태어난 곳은 부산입니다.
집 아래 항구에 갈매기가 울고
태종대 앞 오륙도는
오늘도 다섯 개인지 여섯 개인지 모르고
거기서 한 육 년을 살았지요
그러면 거기가 고향인가요?

그곳도 아니면
유년시절을 서울 약수동에서 살았습니다.
밖에 나가면 "쌀" 발음을 못 한다고
처음으로 코피를 흘리고 와서 한참 울었습니다.
이곳이 나의 고향인가요?

아니면
10대~20대까지 하월곡동에서 살았습니다.
이곳이 나의 고향인가요?

이제 성년이 되어
섬기는 교회 때문에 수없이 이사를
하였습니다.

청량리,
이곳은 내 목회 길의 출발점이 된 곳이고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곳입니다.
그럼에도
이곳은 제 고향이라 할 수 없겠지요

제주도 목회자로
드디어 나도 가정을 가졌습니다.
아리따운 참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멋지고 잘생긴 아들을 이곳에서 낳았습니다.
이곳에서 저의 3~40대 청춘을 불살랐고
후회 없는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 사이 부모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나마 들어오던 북청, 함흥 이야기를
이제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곳 제주도가 나의 고향입니까?
제주도를 떠나
아산, 천안, 조치원, 괴산으로 떠돌아다닙니다.
그럼 이곳들이 제 고향입니까?

강원도 양구
제주도 다음으로 제 시간을 바친 곳,
어쩌면 가장 정열적인 목회지
참 좋은 교우들과 합력하였던 곳
제주도 못지않은 내 목양의 고향
그럼에도
제 고향은 아니지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나의 아버지의 고향, 아니 내 고향이어야 할
함경남도 북청군 덕성면 이망지리 서음동에
가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고향을 묻지 말아 주십시오
내 고향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내 고향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난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

꿈

눈 뜨면 달라진 세상사
온전한 것은 날마다 사라지고
그래도
그 긴 세월
잘도 버티었다.

혹시나 하고 뒤져 찾아보니
그 옛날의 순수했던
3면이 떨어져 나간 꿈 한 조각이
온갖 굳은 때로, 먼지로, 잔뜩 얼룩진 채로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겨우 버티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그것마저 없었다면
이 긴 세월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

누가 묻거든
꿈은 아직 저렇게라도 남았다고
이제 인생의 반을 넘었을 뿐인데

가을 1

가을에 입맛 나게 하려고
마트를 이리저리 돌고 돌아
벌써 몇 바퀴
마트는 단거리 마라톤이 되고

이것저것 골라 계산하는데
거기엔 시집이 들었다.

아내의 매서운 눈초리
“이건 왜 샀어?”

.....

(가을엔 꼭 시집을 사야지)

가을 2

가을, 한 줄의 싯귀에 목말라
온 동네 기웃기웃

지친 손가락
무거워진 눈동자
쑤셔오는 허리

시인은 많으나
시가 없으니

시를 위해
그리고 시인을 찾아

가을 3

우르르르
꽝, 번쩍
비가 세차게 내리는

후드드륵
우드득
바람에 낙엽이 떨어지는

그 소리의 맞닿는 곳에
지난
여름이 숨져있다.

가을 4

때로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홀로…

스치는 바람 속에
으스러져 버린 너를
바람의 바늘로 하나씩 꿰어보려는 듯

순결을 숨겨둔 창공에
여전히 지우지 못한 추억을
가을이라 부르다.

스산하게 부는 바람 따라 나선
단풍을 주워서 가슴에 품으면
너의 거친 숨결이
내 가슴속에서 소리치다.

그래 너의 이름은 가을이다.

가을 5

그리움만 머무는 山에 오르면
붉은 새 옷 입은 그가 사뿐히 기다린다.

언제나 기다림으로 오셨다가
그리움으로 사라지는 그대
보내지 않으면
영영 오시지 않을 것 같아
내 그리움의 창에 이름 적어 놓는다.
잃어버린 가을(詩)이라고…

산 저편에서 그림자 드리울 때에
외로운 가슴속으로
외쳐대는 소리가 있다.

시인이여,
천년, 만년의 그리움을 품고
이 가을을 외로워하라

가을 6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진다.
떨어진 낙엽 사이에 시가 있다.

시를 줍다 보니
거기에 겨울이 있었다.

그 새벽에

십자가 앞에서
성경을 껴안고
가만히 귀 기울여보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살아난다.

오늘도
시키실 일이 있으시다며
부르시는
주님의 못 박히신 손과 허리를 보았다.

아침의 해가
예배당의 창문을 찾아오는 그때쯤
주님은
다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시다.

그들은

아직은 어색한 얼룩무늬 제복과 군화를 신은 그들은
매일 06:30 힘찬 군기가 흐르는 연병장에 모여서
고향의 부모에게 올리는 기도문과 편지를 읽으며
매서운 추위에도 체조와 조깅을 하는 그들은

낯선 전방으로 출동하는 군용트럭에서도
잠이 모자라 꾸벅꾸벅 졸면서
물속에 처박히고, 숲 속, 진흙, 먼지에 온 몸을 던져도
첫 휴가 나오기 전까지 그들이 있는 곳이
고향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알지는 못하여도

사랑하는 가족의 면회에 눈물을 흘리며
하룻밤 지나면 다시 보내는 이별의 슬픔을 알면서도
가족들을 웃음 띤 모습으로 보내는 그들은
터미널을 빠져나가는 버스를 보면서 따라 가고픈
여자 친구가 갑자기 떠났다는 실연의 통지에 울지도 못했던
혈육의 임종과 슬픈 소식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들은

첫 봉급 73,500원을 받고 매점에 달려가 즐거워하고
예배당의 십자가를 보면서
길고도 긴 이등병 시간을 달래보는
모두가 잠이 든 시간에 초소에서
밀려드는 졸음과 싸워야 하고
2.5km 앞 북한군을 마주 보면서
분단의 현실을 느끼는 그들은

그렇게
가슴에 올라가는 작대기 하나씩 보면서
국가를 지키는 그들은
조국을 사랑하고 그 시간을 명예로 여기는 군인이다.

눈보라

어수선한 시절 속에서
시작도 마지막도 모르는 채
저리 철없이 흩날리는 눈보라

눈보라의 몸짓 따라
어렸던 때로 빨려 들어가듯

눈보라 마치는 때면

어느새
늙어버린 낯선 사내가 거기 있었다.

달력

무심코
11월의 뒷장을 넘겼더니

아뿔싸…

두타연

아무도 없었다.
그 누구의 손길도 스치지 않은
고요함

아무도 없었다.
거기에는 그들만의 어울림만
내 걸음소리 하나만이라도
그들의 적막을 깨는 것 같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만의 존재 방식으로 살고 있는 그곳

왠지
그들의 세계에 초대장 없이
찾아간 것이 미안해지는

나는 그들에게 부조화인 셈이다.

이미
순수성을 잃은
세속의 영예로 덧씌워진…

그들의 세계에서
저들만의 고요함을 간직한
어울림의 몸짓을 배워야 하였다.

* 두타연은 강원도 양구에 있는 민통선 생태공원으로 이곳에서 금강산까지 두 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바위

바위는
곁에서
날마다 높아만 가는 나무를
매우 부러워하였다.

바위는
옆에서
날마다 빠르게 번식하는 풀들을
너무 부러워하였다.

바위는
언제부터인가
갈라지는 자신의 틈을 보면서
더욱 서러워지기 시작하였다.

틈 속을 파고드는
나무의 뿌리들과 지나는 짐승들을
더 이상 막을 힘이 없기 때문이다.

불타는 마음을 품고

마음 깊은 곳에 불덩이를 품고 있습니다.
숨길 수 없는 일을 만나면 더욱 뜨거워집니다.
감당치 못할 일이 생기면 이 불은 더욱 크게 살아납니다.

홀로 있으면 꺼진듯하던 불이 다시 마음을 움직여줍니다.
물은 불을 끈다는데,
마음의 불은 그 무엇으로도 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붙은 불은 겁 없이 마구 번져 나갑니다.
그 불안에는 말로 할 수 없는 숱한 추억이 있었고,
나는 없고 불만 보이기도 합니다.

불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을 잊습니다만
불이 기쁨이나 열정, 사명만이 아니라 큰 고통이요,
아픔임을 알게 됩니다.

큰 슬픔은 가장 큰 불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그 불의 진한
뜨거움이 피워낼 것 없는 빈 마음을 보게 합니다.

마음의 불은 꺼지지 않으려는 현실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불은 이루어낼 수 없는 고민입니다.
그러기에 이 불은 여전히 마음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누가 이 불을 꺼줄 것이며, 또 지펴주겠습니까?

마음의 불은 자주 모양이 변합니다.
때로는 눈물로 나타나고,
또는 웃음이 되어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불타고 있는 마음을 끌어안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새해의 기도

주여!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날 부끄러웠던 불충을 잊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밀한 손으로 도우셨고
또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니
미련한 종, 차마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소서
머리가 무릎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어서
듣는 이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에 감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돕는 이들을 보내어주시옵소서
일꾼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신 모세는 80세에
갈렙은 85세에
하오니
제 나이가 아직 어립니다.

어디로 보내시던지 가겠습니다.
어떻게 쓰시던지 순종하겠습니다.

천막을 쳐도 좋고
작은 방이어도 좋고
외진 곳이라도 좋습니다.

다시
내 십자가를 붙잡고

주의 제단에서 몇 날, 몇 밤을
지낼 수 있다면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주님의 나팔로
주님의 수건으로
주님, 쓰임을 받게 하소서

주여, 불러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냐고 묻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나라 가기 원합니다.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수상한 신호

잣나무 사이로 슬금슬금 떨어지는 잣을 보면서
거리의 은행나무 잎이 뒹구는 모습을 보면서
겨울을 알리는 수상한 신호를 느낀다.

전방 초소에 초병들이 가을의 설악을 바라보면서
먼저 느끼는 찬바람은 금세 달려올 겨울이다.
초병들은 눈이 오면 로맨틱하였던 추억들이
겨울이 없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빌게 된다.

오늘 배달된 저 신호는 가을을 알리는 소식이 아니다.
지금 나는 가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상한 신호로 살금살금 다가오는
모진 눈보라 겨울에게 포위를 당하여 가는 중이다.

온 산을 뒤덮은 저 황홀한 무늬들은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겨울을 알리는 신호이건만
저 수상한 신호를 읽지 못하고 있다.

아니
저 수상한 신호를 읽었다 하여도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가?

하기야
우리네가 언제부터 저 수많은 신호를
일일이 알아보고 찾아보고 살았던가
그냥 때가 되면 찾아오는 세월을 따라갈 뿐이지.

시인들

월요일
미당 서정주 시인 다녀가다.
그의 시 전집을 들고

화요일
김춘수 시인이
시론과 시 전집을 들고 뛰어 들어섰다.

수요일
정현종 시인이
자신이 쓴 시 중에 제일 짧은 거라며 읽어보라 한다.

시집을 건네받는데
김종삼 시인이
천국 밖에서 다윗의 동상을 만지다가
관리인에게 들켜서 도망쳐 왔다며
부리나케 들어와 숨는다.

목요일
황동규 시인이
풍장을 읽어보라며 급하게 던져 놓고
마종기 시인이 미국에서 오는 중이라 마중 간다며
저들과 어울리지 않고 도망치듯 가버린다.

금요일
이제는 더 올 시인이 없다고 할 때쯤
김소월 시인이
청록집을 보내서 열어보려는데
동시에 박인환 시인도
자기 이름을 잊지 말라며
시집을 함께 보내왔다.

저 건너 포차에서는 돌아간 줄 알았던
김종삼, 정현종이 좋아하는 술을
벌써 여러 날 대작을 하고 있다.

토요일
남진우 비평가가
이들이 다녀갔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의 시학을 들고 왔지만 헛걸음
포차의 두 시인은 인사불성으로 반길 수 없었다.

일요일
이제는 아무도 올 시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생진 시인이 찾아온다.
주일에는 목사보다 설교를 더 잘한다는
성산포 바다에 꼭 가야 한다며 억지로 잡아끈다.

이들은 모두 택배를 타고
찾아온 손님들이었다.

아내

하늘나라로 먼저 가신
내 곁에 계신 엄마

아버지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꿈을 꾸고는
갑자기 “아버지” 하고
소리쳐 보았어요

옆에 계시던
아버지는 웃으면서
“나 여기 있다” 하시며
만져주실 때
다시 잘 수 있었지요

지금은
밝은 낮에 “아버지” 하고 불러도
대답이 없으시네

아
버
지!

여의도

야누스의 얼굴을 가지고
힘껏 두드리는 망치 소리에
내 가슴 무너진다.

한 번 쾅하면 내 주머니가 울고
두 번 탕하면 내 심장이 떨리고
세 번 탁하면

내일이
개똥같아도
꿈이라 하여도 오고야 말겠지만
지금은
뜨거운 아스팔트를 마냥 달리고 싶다.

저기 그들만 있는 곳에
뒷간의 양분을 퍼다가 줄 수만 있다면
차라리 웃을 수 있다지만

저곳을 보면서
미치지 않고 살아 있는 것만이라도
행운이다.

쓱싹
쓱싹
오늘은 칼이나 갈아야 하겠다.

쓱싹
쓱싹
이놈의 칼은 날마다 갈아도
날이 서지 않는다.

연필

자기를 깎아내고
뼈를 도려내고도 모자라
고결한 검은 피까지 흘려

그대가 한 일은
참으로 위대하였다.

그대는
모두의 기억에서 사라지지만

그대의
검은 피는
오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흔적을 남기고 있다.

예배당 1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머리 숙이고, 눈을 감아보지만

자꾸 생각나는 것은
가스 불을 끄지 않고 온 것 같은

마음 갈피 잡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설교자의 넥타이가 삐뚤어졌고

들려오는 설교자의 발음은
자꾸만
근심하라, 걱정하라고 들려온다.

오늘도
예배시간이 무척 길다.

예배당 2

내 영혼에는
뜨거움이 없으면서

회중의 영혼만
매우 뜨겁기를

불붙지 않은
내 영혼에
매캐한 연기만
모락모락

오늘따라
예배당은 매우 매웠다.

요나의 고백

이리 엉키고
저리 설키고
서러움과 원망이 겹칩니다.

어디선가 불쑥 삐져나온
종기 하나로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이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내 탓입니다.
이리저리 궁리를 해보아도

내 탓입니다.
말씀을 열어 읽어보아도

내 탓입니다.
한없이 눈물의 기도를 하여도

돌아오는 답은 하나
내 탓입니다.

잃어버린 시

써 놓은 뒤 잃어버린 시들
좋은 글이라고 놔두었다가
언젠가 슬그머니 도망친
제목만 생각나고
내용은 가물가물
그냥 좋았다고 느꼈던 시

써 놓고 지워버린 시를
좋지 않은 글이라고
무시했다가
언젠가 찾아보게 되는 시
제목도 내용도 오락가락

좋은 시라고 말하기도
나쁜 시라고 말하기도
알 수 없는

차라리 잃어버리는 것이
더 나은 것이었는지

삶에 있어서
잊어버리는 것과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니던가

제주도 오골계

제주도 도순산방,
절친 오인자 시인 집에
토실토실하게 잘 자란
오골계들이 있다 하여

제주도에 가고파 하는 나에게
오 시인은 “재게, 재게 옵소” 하지만

정말 내가 그곳에 간다면
잘 자란 오골계 중 한 놈은
그 날로 반드시 꽥 이다.

그놈이 불쌍해서
차마 제주도에 가기가 망설여진다.

창가에서

봄볕을 벗 삼아
저기 흘러가는 시간 속으로
한 잔의 커피와 홀로
햇빛이 온 얼굴을 채우면
아무것도 없는

무심한 세월은 그렇게

책을 펴
한 글자, 한 글자 읽다 보니
커피는 다 식은 후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내용에

인간사도 그렇게

그래도
내 맘속에 깊이 담아둔 추억들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라

나만 지니고 싶은 이야기

봄날, 창가에 홀로

금을 캐다

최 귀 숙

낮에도 꿈을 꾼다.
날마다
금을 캐는 꿈을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는
금을 찾아
오늘도
나는
부지런히 광맥을 찾아 헤맨다.

지치고 병들어 죽고만 싶던
칠흑 같은 동굴 속
금빛으로 내 영혼 안식 얻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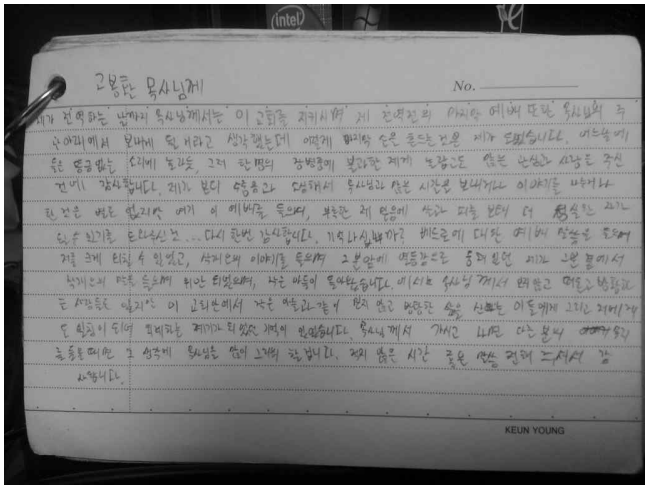
기쁨으로 온몸 떨다
삶의 고뇌로
망각의 늪에 빠져 헤매는 날이면

나는 다시 금을 찾아
식음도 잊은 채
목마른 사슴처럼 길을 떠난다

금 같은 믿음으로
죽더라도 변치 말라던 부탁의 말씀
몸부림으로 하늘 길에 금을 뿌리다

오늘도 대낮부터
금을 찾아 꿈을 꾼다.
지난날의 모든 차가운 울음은
금빛 환희로 하늘에 빛나다.

병사의 편지


고봉환 목사님께
No.
제가 전역하는 날까지 목사님께서는 이 교회를 지키시며 제 전역 전의 마지막 예배 또한 목사님의 주관 아래에서 보내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마지막 손을 흔드는 것은 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기치 못한 일로 그리고 한 번의 정변에 보관한 제게 도움도 없는 안타깝고 감동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목사님과 같은 시간을 보내지는 이야기를 마치나 된 것은 배우 없지만 예배 에 예배를 드리며, 부족한 제 믿음에 성장과 지속 보태 더 성숙한 교제 있는 믿음을 드리신 것 ...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끼적거리다 보니 벌써 이렇게 대한 예배 말씀을 통해 저를 크게 터치 하 하였고, 성경에 이야기를 통하여 그분안에 연동하는 중요 인물 이야기 보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또한 여러 동역자들과 이러저러 얘기하며 웃고 떠들고 함께 은 시간들도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들은 뜬금없는 소리에 놀라듯, 그저 한 명의 장병 중에 불과한 제게 놀랍고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본디 수줍음과 소심해서 목사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한 적은 별로 없지만 여기 이 예배를 들으며, 부족한 제 믿음에 살과 피를 보태 더 성실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도와주신 것…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기억나십니까? 베드로에 대한 예배 말씀을 들으며 저를 크게 외칠 수 있었고,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분 앞에 열등감으로 뭉쳐있던 제가 그분 곁에서 삭개오의 말을 들으며 위안되었으며, 작은 아들이 돌아왔습니다에서는 목사님께서 믿지 않고 떠돌고 방황과 그 사람들도 있지만 이 교회 안에서 작은 아들과 같이 믿지 않고 방탕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일침이 되어 회개하는 계기가 되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가시고 나면 다른 분의 목회를 들을 때면 그 생각에 목사님을 많이 그리워할 겁니다. 적지 않은 시간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부

가상 교회

假想的 軍 裁判

'성 대령'에게 전방의 340부대가 적군에 의하여 전멸되었다는 '급전'이 날아든 것은 새벽 동이 트기 전의 일이다. '성 대령'의 동기생인 '강 대령'이 연대장으로 있던 부대였기에 '급전'은 상당한 충격이었다.
이로 인하여 군 수뇌부가 '지휘 책임'을 묻고자, 군법 재판을 개회한 것은 불과 3~4시간 후의 일이다.

재판정에 들어선 '강 대령'의 모습은 참으로 처참해 보였다. '성 대령'은 그런 동기를 보면서 자기가 만약 340부대장이었다면 지금 저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과 동정심이 생겼다.
애국가가 울리고, 선서가 있은 후 군 재판장인 '예 중장'은 준엄한 목소리로 '강 대령'을 내려다보면서 부대를 끝까지 사수하지 못한 직무와 부하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진지를 빼앗긴 일에 대한 추궁으로 재판을 시작하였다. 이로써 군 수뇌부의 재판 송사에 대한 논고를 필하고,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서 있는 '강 대령'의 변호인인 '성 대령'의 변론이 있었다.

'성 대령'은 '강 대령'의 현 처지를 재판관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절박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적에게 왜? 진지를 빼앗기고, 부하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밝혀내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앞섰다.
왜냐하면 최소한 '강 대령'은 이제껏 자기를 위하여 출세의 줄을 잡으려고 한 일이 전혀 없는 순수 야전 지휘관이요, 강직한 성품과 직분에 대한 책임감, 의리를 결코 소홀히 할 군인이 아님을 그는 30년 지기로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 대령 : (변호인석에 서서 '강 대령'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을 한다.) 왜 귀관은 오늘의 결과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그 연유를 귀관은 솔직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귀관은 지휘관으로서, 국가와 부대, 부하들을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지키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는 않으셨지요?

비공개로 열린 재판석에는 사건의 심각성 때문에 '성 대령'의 포효 같은 질책에 순간 정적이 몰아침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강 대령’의 입이 열리기만 모두 기다리는데 그 시간이 마치 몇십 년이나 되는 긴 시간으로 느껴만 졌다.

이윽고 ‘강 대령’은 말문을 열고,

강 대령 : “적에게 사면으로 포위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이들로부터 부대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불철주야 적의 동태를 감시하고 적절한 방안을 세웠습니다만 그러던 중 적군이 야간에 침공을 감행하여 저희 부대는 큰 전투를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맞붙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군에게는 ‘실탄’이 부족하였습니다. 무전병에게 본부로 실탄을 지원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만, 응답이 없었고, 옆의 부대에도 실탄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모두가 지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백병전으로 최후까지 싸웠으나, 실탄의 지원 없이는 진지를 사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놈의 ‘실탄’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더라면…”

‘강 대령’은 법정이 떠나도록 흐느꼈다.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목이 메 이야기는 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의 감정은 격하였다.)

군 재판부는 '강 대령'의 변론을 들으면서, 당시의 정황을 보고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해당 부대들의 장교들을 소환하여 당시의 상황을 듣기로 하고 변호인 '성 대령'에게 통지하고 재판을 다음 날에 속개하였다.

재판장 : 오늘 340부대의 전멸을 듣고 그 지휘관을 심판하고자 재판을 속개합니다. 증인들은 증인석에서 선서를 한 대로 증언하시고, 법관과 변호인은 질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 대령 :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당시 지원을 요청받은 부대장들을 소환하여 '강 대령'의 요청이 정당하였는지, 잘못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증인들은 정직하게 대답을 바랍니다.

정 대령 : 저는 본부 무기 지원 담당 장교입니다. 당시 '강 대령'이 실탄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부에서는 340부대만 특별히 지원해줄 입장은 아닙니다. 그보다 어려운 부대가 많았고, 특히 신참 장교들이 전방에 다수 있어서 340부대의 지원 요청을 들었으나, 거기까지는

저희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더구나 해외에 파병한 부대들의 지원을 우선 정책으로 하는 부대의 입장에서는 예하부대인 340부대까지는 지원을 요청받았으나, 실질적으로 거기까지는 지원해야 할 의무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이러한 패전 소식을 들었고 재판정에서 '강 대령'을 보니 바로 제가 잘못한 것임을 알겠으며, 진지의 손실과 패전의 책임은 수뇌부의 작전 전략과 정책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입니다.

이 대령 : 저는 옆 부대의 연대장으로서 당시 340부대의 지원을 요청받았습니다. 솔직히 그는 좋은 지휘관이기는 하지만 저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같은 학교나 전선에서 근무한 적이 없어서 특별히 도와주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고, 나와 관련된 다른 부대들을 돌아보아야 하기에 요청을 받았으나 돕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딱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저와 같은 학교 출신이었거나 전선에서 동고동락한 사이였다면 목숨을 걸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 대령 : 저는 '강 대령'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강직하여 평소에 자신의 직무만 알 뿐, 다른 지휘관의 입장이나, 부대의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주관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또 여러 어려운 일이 있었으나 그는 그때마다 일을 잘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도움을 요청받았으나 그가 이번에도 잘하리라고 믿었기에… 하여튼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정 하사 : 저는 패전한 340부대의 부사관으로서 평소에 '강 대령"의 지휘 방침을 존경해 왔습니다. 연대장께서는 저희 부대를 창설하시고, 이날까지 한 부대에서만 몸담으셨습니다. 그의 봉급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자신의 몸을 살피지 않고 부대를 위하여 뭐든지 털어주셨습니다. 그나마 부대가 비록 패전하였으나 이 정도까지 백병전으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연대장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부대를 사랑하는 철저한 군인정신에 의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타 부대의 지원과 실탄의 공급이 제대로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저희 부대는 결코 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부대는 편안할 때, 저희 부대는

늘 연대장의 명령을 따라 헌신적으로 약한 예하 부대를 격려하고 다음의 지휘관을 양성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 부대를 적극 후원하는 타 부대의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대가 별로 번성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몇 협력을 제외하고는 부대의 우량화를 위하여 지원이 없었습니다. 연대장은 이러한 어려움을 끝까지 참으시고 오늘의 백병전에서 비록 패하시고 이렇게 재판정에 죄인으로서 서시게 되었습니다만 연대장께서는 열악한 부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전투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저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 : 이제 증인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당사자의 전투 참전에 있어서 지휘 방침과 작전 수행에 대한 잘못은 없었는지를 들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강 대령'은 이번 전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직히 보고하시고 재판정의 판결에 순복하시오.

강 대령 : 저는 패전 장교입니다. 무어라 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원래부터 약한 부대여서 기초를 다듬어야 하겠다는 일념으로 전속을 거부하고 한 부대

에서만 외골수로 있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강직하게 되었고, 또 다른 부대장들의 이임의 소식과 전속의 현장을 보면서 무언가 해놓고 난 후에야 다른 부대로 갈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강력한 실적 정책과 또 막상 일을 이루지도 못하고 정든 부대를 떠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허락지 않아서 기회가 되었을 때 주저하다가 그냥 자리를 틀고 보니 이제는 저를 아는 야전 사령관이나, 본부의 인물이 줄어들고 자연히 잊혀진 존재로 살다 보니 이렇게 큰 전투를 맞이하여 저희 부대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희 부대가 우량부대로 성장하고자 몇 번이고 동 사단과 타 부대, 타 사단에 타전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생각해보자는 답장만 왔으며, 본부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고 다만 일부 타 부대의 부사관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그나마 340부대가 지탱할 수 있었던 유일한 공급 경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야전부대가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부대의 우량화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량화 방법은 서로의 간격을 초월하여 같은 예하 부대라는 인식으로서 예하 부대 하나의 전멸이

본부의 전멸이라는 위기의식을 함께 가져야만 합니다.

(잠시 눈물을 닦으면서) 그러나 저희 같은 야전 지휘관에게는 정치적인 제스처도 없고, 순수한 공격형 전략가로서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생각도 해보지를 않았기에 불가피하게 중앙에 뇌물을 보내거나 인사의 줄을 대보려고 하지 않았고, 옆 부대의 상사에게 필요 이상의 웃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 심정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자부심과 교만한 마음이 없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부대 창설 10년 만에 큰 패배를 맛보아야 한 저로서는 有口無言이며, 패전자입니다. 저로 인하여 부대가 참패하였고 부하들과 진지를 상실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을 합니다. 조금 더 열심으로 성의를 가지고 직무에 충성하였더라면 이러한 전투에서 최소한 진지만이라도 지킬 수 있었으리라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게 어떠한 형벌을 내리더라도 저는 순복을 하겠습니다. 저를 따르다가 순직한 부하들과 그간 도움을

나눈 부사관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재판장 :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부대를 처음 창설할 때에는 서로가 다른 부대라 하여도 유기적 관계를 맺으라고 한 것인데 처음의 부대 창설 정신은 어디로 가고 이리도 개 부대의 형태로 전락하였습니다. 정치군인들은 전투 없는 곳에서, 또는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편안히 그들의 작전과 기개를 펼치고 있지만, 순수 야전관인 강 대령을 위시한 그들에게는 잘해도 '빛'이 없고 못하면 '죄인의 옷'을 입고 여론의 재판과 명예의 욕을 들어야 하고,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귀한 지휘관을 문책해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과연 누가 '강 대령'을 재판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자! 판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강 대령의 소망은 무엇이오?

강 대령 : 제게 다시 한 번 야전군 지휘가 허락된다면 340부대의 재창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야전부대는 중앙부대에 비하여 환경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대민 관계에서 특별한 지원과 다른 부대들의 공동대응이 없이는 스스로가 서지를 못합니

다. 일부 부사관들의 도움이나, 본부의 일시적인 협조로서는 하나의 진지를 구축하기는 부족한 것이 야전부대들의 실상입니다. 해외 파견부대의 지원도 절실한 입장이지만 국내 전방 부대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제게 다시 한 번 340부대의 창설과 지휘권을 맡겨주시고 부대가 전투에서 이길 전력을 갖추기까지 본부에서나, 예하 부대에서 초월적인 전력 보강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재판장 : 잘 알겠소. 자! 이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까? 검사 측, 마 대령은 할 말씀이 없으시오?

마 대령 :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다시 지휘권과 부대의 창설을 도와서는 안 됩니다. 그는 자기만 아는 독선가요 원만한 인간관계를 하지 못하는 실패자입니다. 그에게는 기회를 주지 말고 협조를 즉각 막고 구속하여야 합니다. 이는 검사인 저를 비롯하여 다수의 지휘관들의 분명한 결의 사항입니다.

재판장 :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판결을 내리고자 합니

다. 모두 엄숙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340부대의 패전은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 진지가 손실되었습니다만, 사정을 듣고 보니 이는 내부의 안일함과 닫혀진 마음과 비협력에 의해서 전방부대가 손실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법정은 강 대령에게는 1년 근신과 부대의 재창설을 명하고, 각 부대장들은 그의 직무를 초월적으로 도울 것을 명령합니다.

성 대령 : 존경하는 재판장님! 진심으로 관대한 판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의 지도부에서 '마 대령' 같은 분들이 계시는 한 우리의 교란을 계속될 것입니다. 이후로도 재판부에서 군 수뇌부를 통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부대의 재건설을 위하여 초월적으로 협력을 바라고, 본부에서 저를 특별히 감독관으로 파송을 바랍니다.

재판장 : 좋은 의견이요. 이후로 340부대는 강 대령의 지휘와 성 대령의 지도를 받아 진지를 다시 구축하고 적군으로부터 사수를 하시오. 이로써 본 법정은 판결을 마칩니다.

"땅, 땅, 땅"

강 대령 : 시골 교회(미자립 교회) 목사

부사관 : 시골 교회 집사와 서울 대형 교회 집사

성 대령 : 성령

재판장 : 예수님

마 대령 : 마귀

박 대령 : 같은 교단 목사, 강 대령 반대자

이 대령 : 타 교단 목사

정 대령 : 같은 교단 총회본부 목사, 반대자

흩어지는 교회의 假想 목회

서울의 '강 목사'는 40대 후반으로 그래도 차세대 지도자로서 얼마 전에 부각된 유능한 목회자다. 그러나 그는 지금 심각한 결정을 하였다. 그가 섬기던 교회를 본다면 무엇하나 걱정할 것 없는 완벽에 가까운 교회이며, 장로들과도 불화가 없고 교우들도 모두 존경과 협력으로 1천 명이 넘는 교회로서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교회이다. 그에게 지급되는 사례비는 물론 大小事에 보충되는 모든 재정적 지원도 부족한 점이 없었고, 이제는 꿈에 그리던 대교회의 건축도 앞두고 있다. 그는 안식년에는 성지순례에다가, 매년 휴가는 미국, 유럽으로 다녀올 정도로 부족함이 없고, 더욱 교회는 잠재적 부흥의 틀을 가지고 있다.

그런 그가 느닷없이 '사임'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다. 물론 이 일로 교회의 장로들과 제직들이 놀란 것은 물론이고, 목회자의 가족들도 무척이나 당황하였다. 난처한 큰 문제가 있는가 하였으나 강 목사의 사임 변은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곳으로 가야 하겠다"는 것이다. 장로들이 와서 사임의 번복을 권하면서 "목사가 떠나면 나도 떠난다", "이러면 우리 교회는 죽는다"는 여러 유혹과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권유로 그의 사택은 늘 눈물바다로 뒤덮였다. "가장 유능하고 문제도 없는데 떠난다니 그것이 무슨 말이야, 그것도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겠다니 가족들과 당신의 장래도 생각해 보았느냐"고 말들이 많았다. 그래서 강 목사는 한 주일 더 연기를 하고 다시 주일 낮 예배에 서서 그의 심중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확고한 소명으로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저를 염려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복음의 열정에 붙잡힌 여러분을 보자니 오히려 저는 더욱 이제는 떠나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있으므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없으므로 문제가 있다면 이는 저를 보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보다 주님을 보십시오!. 저를 부르시고 쓰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가도 계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가야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미개척지, 고난의 시골, 거기에 바로 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능력이 있습니까? 소위 똑똑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재능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더욱 안심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 재능을 바로 그곳, 부흥이 안 되고, 평생 미자립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에 가서 다시 복음의 불을 붙여 보렵니다. 목회는 머무는 것이 아니

라, 흘러가게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제가 시골의 약한 교회를 굳이 선택하려는 이유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말씀하신 주님을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할 답은 강도 만난 여행자를 규명하므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과거에 어떠하였는지 지금 어떠한 신분에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죽음을 앞두고, 모든 것이 털리고 도움이 필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러 저러한 이유나 사상이나 편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 와서 속히 병원으로 옮겨주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그는 의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설사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그 누가 와서 자기를 옮겨 주겠다 하면 거절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를 이해를 해주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저는 오늘 목회적 관점에서 농어촌의 미자립 교회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는 옷을 벗김을 당하였습니다. 몸에 상처를 입었기에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력으로서는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위치에 그는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도 남보다 뛰어난 재력가요, 대단한 임무를 가지고 자기의 삶에 충성을 다한 인물이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아닙니다. 농촌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오늘 거반 죽게 된 지경에 있습니다. 강도를 만난 것은 자기의 책임이 아닙니다. 전혀 자기의 의도와 다르게 일이 진행되어서 지금 그렇게 길거리에 팽개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나눌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강도 만난 사람의 모습이요, 농촌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비유의 마지막으로 하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실행하는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되십시다. 이제 제가 염치불구하고, 감히 후임자를 천거할 터인데 받아드려 주시겠습니까? 최악의 목회지에서 고생만 한 '타 교단'의 '김 전도사'를 천거합니다. 물론, 문제를 잘 압니다만, 꼭 받아들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제 성숙하여 '내 교회만'이라는 작은 신앙에서 벗어났다고 저는 믿고 갑니다. 평안히 지내십시오. 주 안에서 서로가 기도하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어주십시오!"

다음 날 강 목사는 눈물의 송별과 안 떨어지려는 가족들을 재촉하여 비는 내리고 황무지 같고 아무도 맞이하는 이 없는 농촌교회 예배당의 십자가 앞에 엎드렸다.
강 목사가 떠난 교회는 자연히 후임자의 문제로 여러 의견의 갈래를 이루었다.

그래서 모두 의견을 모으기 위하여 장로회의를 열었고 장로들은 그들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김 장로 : 아무리 생각을 하여도 후임자로서 김 전도사는 불가하다고 생각하오. 이유는 그가 같은 교단이 아니라는 점과 전임목사만큼의 공부를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목회의 경험도 시골에서는 어떠하였는지는 몰라도 서울에서의 목회를 과연 제대로 감당할는지, 교단 총회에서도 이를 인정할는지 도저히 불가하다고 나는 생각하고 나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결국 다른 교회로 가야 할 것이오.

박 장로 :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요, 그래도 한국에서 알아주는 인물들이 모여 있고, 지식인들이 많은 교회인데 미안한 표현이지만 좀 무식해 보이는 시골교회 목회자를 어찌 모실 수 있단 말이오.

최 장로 : 두 분의 의견을 잘 들었소만, 나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앞으로 몇 년간만 존재한다면 몰라도 강 목사가 있어도 다음의 목회자가 언젠가는 필요하지 않겠소. 교회란 늘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법이요. 설사 그가 좀 못 배웠다고 합시다. 좀 테크닉이 부족하다고 합시다. 목회는 기도하는 일과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기에, 그의 사역의 짐을 나누어 져주면 되지 않겠소. 영적 깨어 있음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면 되리라 봅니다.

이 장로 : 무슨 말씀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교단도 없고, 총회도 없고, 헌법도 없단 말씀이요? 그가 우리 교단의 사람이라면 한 번쯤 양보할 수 있겠으나 지금이라면 어림도 없소. 그가 아니어도 우리 안에 그만한 사람이 없겠소?

모 장로 : 모든 분들의 말씀이 옳소이다. 그러나 이 중에 그래도 제일 늙고, 이 교회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쓸모없는 노인의 말이라 하지 말고 우리가 과연 주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인가를 생각하여 봅시다. 제 생각에는 '성경의 예'가 먼저일 것이요, 다음의 총회 헌법적 차원은 교회가 하기 나름이 아닌가 싶소이다. 더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경한 전임 목사의 소원도 우리가 그를 생각하여 들어 담을만하다고 봅니다만…

강 장로 : 그렇습니다. 저도 모 장로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주님을 위한 곳이요, 그의 학식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조금 못 배웠다면 그만큼 기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면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모세'는 실패자로서 광야에 있다가 부름을 받았고, '예레미야'는 자신은 작은 아이라 하였으며, '아모스'는 농부였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비법통에서 선지자로 세움을 입었지 않았습니까? 신약에서는 베드로 및 11 사도가 어부요, 관리요, 당원이며, 학문이 없는 무리였지 않습니까?

정 장로 : 그렇습니다. 말씀 중에 끼어들어서 죄송하오만, 바울은 어떻소. 그도 박해자로서 누구 하나 끌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바나바가 그를 발견하여 대사도로 탄생시켰지 않았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회가 없었기에, 아니, 누구 하나 돌아볼 만큼의 협조가 없었기에 그가 그곳에 있어야 하였는지 모를 일이 아닌가요. 그가 자격이 부족하다, 뭐는 이래서, 저래서 안 된다고 하기 전에 우리의 장로교의 예정 5대 교리대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구원'이 나에게 있었다면 그것은

나의 어떤 자격이나 자랑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요, 그저 감사할 뿐이지요. 그에 견주어 이제 김 전도사를 초빙하는 문제도 우리의 뜻과 입맛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유 불문하고 그를 성령님이 허락하신 분이라고 믿고, 나머지 일들은 그가 와서 하는 목양을 보면서 세워 봅시다.

잠시 침묵이 있은 후, 모 장로는 대표로서 전임목사의 뜻을 존중하기로 밝히고, 공동회의 격렬한 토론 끝에 장로들의 책임 아래 김 전도사는 타 교단임에도 초빙이 허락되어 부임을 하게 되었다.
그 후에 몇 달이 지나서 시골구석 미자립 교회로 내려와 있는 강 목사는 있었던 교회에서 보내온 한 통의 편지로 마음이 심히 번잡하여 어찌할 줄 모르고 히스기야처럼 기도 하는 중이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사님! 떠나신 후에 일어난 교회의 일들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몇 분의 장로들과 집사들은 '강 목사'를 모시지 않으면 떠나겠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강 목사'가 아니면 은혜와

성장을 할 수 없다 하고,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분들이 떠나든지, 타 교단에서 이입 오신 '김 전도사'를 보내고 보다 유능한 목회자를 초빙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오시는 것이 교회와 본인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하는 내용이다.

강 목사 : 주님! 참으로 어찌 그들이 그리도 주님의 크신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입맛에 맞추어 줄 설교자를 찾는다 말입니까? 어찌하리까? 이 편지를 주님이 보시고 제게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강 목사는 한 주일을 있었던 교회로 설교를 하기로 하고 그들을 만나 주님의 뜻을 전달하기로 작정을 하고 약속한 날 설교를 시작하였다.

강 목사 : 성도님들!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이리도 흩어지고, 찢기어진 원인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으로 하지 않고 사람들의 모임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기에 비로소 그 사랑을 믿는 성도들 이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천국 가지가 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란 찢어주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모일 뿐 아니라 흩어져 찢기여야 합니다.

주님의 피는 '새 언약'입니다. 피 흘리지 않는 교회의 성장이나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은 없습니다. 나의 피가 흘려질 때, 복음의 꽃은 피어나는 것이요,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열매가 일어납니다. 이제 이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 은총을 따라 살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제게 보낸 편지를 보아서 꼭 '강 목사'만 맡아야만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이기보다는 '강 목사의 교회와 교인들'로 전락시키는 일입니다. 오늘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거룩한 지체가 아닐 것입니다.

성도님들! 교회는 친목계나 그룹이나 명강의를 듣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기는 자세로서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기를 진실로 바라며, 저는

다시 내려가니 다시 찾지 마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축원합니다.

이들은 좁은 의미에서의 어느 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에게 속한" 광의적 교회의 의미로서 새롭게 주님의 지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잠시 자기들의 전유물로 특권으로 생각하였던 좁은 생각에서 돌아서 하나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이루기로 다시 뭉치게 되었다.

후 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24)

위 말씀은 내 신앙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내 영혼의 양식이요, 목회의 근본으로 삼고 진짜 목사가 되겠다고 다짐에 다짐을 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은퇴와 함께 시집을 내면서 지난 내 목회 여정을 회상하여 봅니다.

1차 시기는 1967~1982년 회심과 신학생 시절입니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월산장로교회(현재 번동, 북서울꿈의 교회)에서 회심을 하였고, 심령부흥회에서 은혜와 성령 불을 받고 목회자가 되기로 서원을 하였습니다. 1975년부터 청량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신학도가 되어, 목회자가 되는 출발점을 가졌습니다.

2차 목회 기간은 1982년부터 청량리교회의 목회를 시작으로 효창동, 인천 주안을 거쳐, 1986년부터 1999년까지 제주도 난산교회의 초대 목사로 가장 찬란한 30~40대를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제주도 난산교회는 나의 고향과 같은 곳이며 내 청춘의 최고점인 동시에 아들이 태어난 곳입니다.

난산교회에 부임했을 때, 사택이 없어서 침침한 2평의 골방에서 살았습니다.
도저히 더 안 되겠다 싶어 믿음으로 10평의 사택과 6평의 2층 서고를 건축하였고 흙탕인 마당에다 시멘트 공사 하여 화장실을 건축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초교파 목회자연합회인 현, 동부지역 목회자연합회를 창립시키고 초대 총무와 회장을 수차 역임하면서 오늘의 동목연이 있게 하였습니다.

3차 목회 시기는 1999년 10월 육지로 나와서 아산과 천안에서 개척과 가정교회로 어렵게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때 하필, 우측 고관절 괴사로 인공관절 이식수술을 하고 요양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후배 박신배 교수(현 그리스도대학교 총장)

의 중개로 2016년부터 강원도 양구의 21사단 포병교회에서 군 사역을 하였고, 포병 연대목사로 섬기다가 2012년에 사임을 하였습니다.
재직하는 동안에 2,000여 명의 장병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169대대 열쇠교회를 재건축하였으며, 96대대 한빛교회와 왕포광현교회를 신축하도록 발판을 놓았습니다.
이런 일들로 군 선교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차례의 표창도 있었습니다. 50대를 그곳에서 온 열정으로 정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한 전방의 군 선교였습니다.

4차 목회 시기는 2013년 1월부터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의 문무대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협력 목사로 섬기던 중에, 이제 때가 되어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 35년 동안 가장 감사한 것은 믿음의 제자 중에 두 명의 목회자(왜관 그리스도의 교회 김준원 목사, 서울 대은장로교회 오종훈 목사)를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매우 훌륭한 중진 목사가 되어서 교우들에게 존경을 받고 목양에 힘쓰는 경건하고 진실한 제자들을 볼 때 매우 흐뭇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또 하나, 감사하고 자랑을 하고 싶은 일은 21사단 포병 MCF에 든든한 일꾼이 되어준 김현채, 남석우, 박규천, 정윤기, 김종승, 신혜민 집사님과 표병연대 여전도회의 안향희, 문수현, 이은희, 권해정, 김연화, 김동희 집사님의 헌신적인 섬김에 감사합니다.
특히, 부부(박규천, 이은희)가 한 날에 같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일이며, 강원도를 떠난 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 나의 생일을 기억하고 먼 곳 양구에서 충북 괴산까지 일부러 휴가를 내어 찾아와 환갑잔치를 차려주었습니다.
포병 교우들이여!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그대들 때문에 지금도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군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도록 기회를 주신 문무대교회의 정비호 담임목사님과 전역하신 고찬영 목사님, 두 분의 큰 사랑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낯선 문무대교회에 잘 적응하도록 품어주신 정명규 안수집사님과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정명교, 김남숙, 명도식, 김잔디 집사님의 넉넉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양구 21사단부터 문무대교회까지 주안에서 좋은 벗이신 오금자 권사님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

하고 기억하겠습니다. 그 외 문무대교회의 모든 교우들과 그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되어 기뻤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 평생에 이 못난 남편을 격려하고 밀어주고 사랑해준 아내 최귀숙에게 감사하며 이 책을 앞의 모든 이들에게 바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도우시고 채우셨습니다.
주여, 만왕의 주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아멘

2015. 10. 11.

고 봉 환